

이 땅에 오신 어린양!

4월 18일까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 오전 5시 30분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가 시작됐다. 4월 18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40일 새벽기도회 2주차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어린양'이다. 3월 17일(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8일(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높으신 왕', 19일(수) '죽음을 넘어서신 사랑', 20일(목) '죄인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21일(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제로 진행된다.

1주차 40일 새벽기도회는 '영원하신 어린양'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이기원, 최성민 목사 등이 설교했다<관련 기사 5면>.

40일 새벽기도회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웹페이지(onnuri40.onnuri-church.com)나 사진 속 QR 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출석', '말씀', '묵상' 기능을 제공한다. 웹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다음, '예배당 예배' 또는 '영상 예배' 버튼을 클릭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출석 누적 점수에 따라 1단계 '씨앗'부터 10단계 '작은예수'까지 배지를 획득할 수 있다. '말씀' 메뉴에서는 당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고있는 성도들.

일 설교 정보와 칼럼을 읽을 수 있다. '묵상하기' 메뉴에서는 그날 묵상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 웹페이지 관련 문의는 채널톡(onnuri40.channel.io)으로 하면 된다. 참가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한

다.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해서 찍은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진(화면 캡처 기능)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40일어린양을바라보라) 하고, 사진과 태그가 담긴 게시글을 캡처해서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DM(Direct Message)을 보내면 된다. 성도들이 보낸 사진은 온누리교회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4월 18일까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차세대 '사순절 성경쓰기' 및 '창조질서회복 캠페인'도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돌봄'이 4월 18일(금)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의 창조 선물인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묵상하고, 이를 돌보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한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돌봄' 2주차(3/17~21)에는 월요일(17일) '인간'을 주제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실천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기'를 주제로 실천을 이어간다. 18일(화) '자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19일(수)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20일(목) '실내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21일(금)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실천한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돌봄'에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사항 이해를 돕기 위한 전자책(e-Book)을 제공한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창조질서회복, 사순절 등의 묵상과 실천 후기 등

을 사진과 소감문으로 작성해서 4월 20일(일)까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 이메일(onnuri.lent@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차세대도 사순절에 '사순절 성경쓰기'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Bye Bye 플라스틱'을 한다. 4월 19일(부활절)까지 매일 정해진 성경본문을 따라 쓰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사순절 성경쓰기는 예수님의꿈아이 '컬러링북',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소년부)과 파워웨이브 '성경쓰기',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컬러링북과 성경쓰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Bye Bye 플라스틱'에서는 하루에 사용한 플라스틱(비닐)과 일회용품 생각해 보기, 다화용품 사용하기, 사용한 플라스틱 분리수거 등을 실천한다.

문의: 02-3215-3434(사회선교본부)
02-3215-3523(차세대)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4월 8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온누리교회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상반기 개강을 한다. 4월 8일(화)부터 6월 1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소그룹 나눔에서 <생명의 삶> 묵상 내용과 삶을 나누면서 신앙 성숙을 돕는다. 이번 학기에는 여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 홍하영 기자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서빙고, 양재 3월 19일
부천 29일 개강

서빙고, 양재, 부천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 시니어아카데미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라는 새 이름으로 개강한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 또는 아이스쿨,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하면 된다 (오전 10시부터 진행). 회비는 5만 원.

부천 시니어아카데미는 3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당일 접수나 전화(010-5334-8413)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서빙고(02-3215-3220)

양재(010-7347-3473)

부천(010-5334-8413)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우리 일상에서 천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탁월한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예배는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 연습하는 것이다.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땅에 대한 환상에서 하늘에 대한 환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봅니다. 이 천상의 모습에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 주신 것은 지상에서도 이 예배를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만물과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요한의 눈을 사로잡은 첫 번째 모습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그 빛을 발하는 보석에서 나오는 다양한 색깔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인류에 대한 진노를 자제하겠다는 자비하심의 상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 둘레에 24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한 수입니다. 곧 옛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합한 것이므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보좌를 중심으로 모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보좌 앞에 나오려면 이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나면서 천국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듯이, 천국의 백성들은 이 수정 같이 맑은 바다를

건너 보좌 앞으로 가게 됩니다. 또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 대표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생물은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을 대표합니다. 가장 품위 있는 것을 상징하는 사자,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는 황소, 가장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는 사람, 가장 민첩한 것을 상징하는 독수리 등 모든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과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총 다섯 번의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는 찬송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의 노래는 첫째, 네 생물의 노래, 둘째, 24장로들의 노래, 셋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합창, 넷째, 천사들의 노래, 다섯째, 모든 만물의 합창입니다.

5가지 참된 예배의 특징

<요한계시록> 5장 12~14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그리고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비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는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면 모든 회중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동의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4~5장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 모습을 기초로 유진 피터슨이 ‘5가지 참된 예배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참된 예배는 당신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게 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는 당신을 한 가정의 일원으로, 한 회중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셋째, 참된 예배는 당신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넷째, 참된 예배는 당신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다섯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인지 고백

네 생물의 합창은 하나님이 진실로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8~9절). 예배는 하나님께 그저 좋은 말을 쏟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 또 행하시기로 약속하

신 일을 위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배가 시작될 때 상황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태, 나의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우리의 영광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한 행위가 있습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 것입니다(10~11절). 이 면류관은 주께서 씌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쓰는 그 면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급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자 믿음을 따라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경쟁과 시기, 질투 등 세상의 갈등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고 방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여러 면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입니다(딤후 4:7~8).

둘째, ‘생명의 면류관’입니다(계 2:10).

셋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벧전 5:3~4).

넷째, ‘자랑의 면류관’입니다(살전 2:19~20).

참된 천상의 예배

24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을 때 그분이 기쁨으로 씌워주신 면류관조차 자랑할 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마저 내려놓는 것이 참된 천상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란 우리가 쓰는 면류관조차 초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에 대한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자기중심적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죄란 근본적으로 ‘자기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란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실은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연습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실과 모든 고난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시간 내서 엑세서리처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의 상실과 고난이 예배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일상에서 천상을 바라봅니다.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자기 자신과 가장 사랑했던 것들, 주어진 모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면류관마저 내려놓으며 영원히 경배해야 할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가속 사회

가속하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시간관

20년 전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툴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3년을 지냈다. 동화 같은 풍경을 즐길 새도 없이 어린 두 아이를 돌보면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한국에 돌아와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조용히 그러나 기민하게 많은 일을 해내는 동료 대학원생들을 보며 ‘이것은 또 다른 세상 이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은 짧은 시간에 컴퓨터로 과제를 제출하고, 논문을 쓰고, 통계를 돌리고, 자료를 정리해서 훌쩍 보냈다. 더불어 인터뷰 대상자들을 추려서 이메일과 전화로 섭외하다가 순식간에 점심 배달 주문을 넣었다. 나는 달리는 마차에서 더 무섭게 달리는 특급 열차로 옮겨 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뭔가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했더니 너무 바쁘고 고단해서 점차 예수님이 멀게 느껴졌고,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그러던 중 하르트무트 로자(Harmut Rosa)의 〈소외와 가속〉이라는 역사철학서를 읽었다. 신앙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은혜를 경험했다.

로자는 오늘날 세상을 기술적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했다. 교통과 통신 가속으로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법선으로 3주 동안 이동했는데 이제는 항공기를 타고 8시간, 즉 60분의 1이하 시간이면 갈 수 있

다. 사회 변화 가속으로, 고전적 근대 사회에서는 부부 중심으로 가족이 조직되고 해체되었는데, 후기 근대에는 이혼과 재혼, 동거나 비혼 등으로 가족 순환이 개인의 삶보다 짧아지고 있다. 직업 세계에서도 초기 근대 사회까지는 여러 세대 가업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후기 근대에는 직업이 개인 삶의 주기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회적 가속에서 가장 뚜렷하면서 드라마틱한 측면은 ‘생활 속도의 가속’이라고 한다. 기술의 가속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부족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그렇다면 이 생활의 가속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 성장을 지향하는 경쟁 원리 때문이다. 가속으로 시간을 절감해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경쟁우위를 얻게 된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욕망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선택 가능성에 있는데, 결국 풍부한 경험과 개발된 역량 등을 지향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가속이 점점 심화한다. 고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삶을 가속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게 순조로운 듯하다가 어느 순간 의미와 방향을 지닌 발전을 하지 못하고 광적인 변화 속에서 정신적 질병, 문화적 침체, 그리고 가치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모두 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국토의 종단 거리를 뛰어넘는 1천km 이상의 거리를 비행기와 우버로 여행하기, 100개의 사이트를 넘나들며 꼭 필요하지 않은 온라

인 상품 쇼핑하기, 원근 각처에서 1초 클릭으로 도착한 산터미 같은 매일 처리에 빠져 있다가 문득 모든 게 쉽고 빠르게 접근한 다음 홀연히 낯선 것이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셋째, 관계 면의 변화가 가장 심각해 보인다. 가속된 삶은 지존하신 절대자를 묵상하게 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취하는데 골몰하게 한다.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이런 관계가 꼬였을 때 푸는 것도 괴로우므로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피상적으로 된다. 이 때문에 가속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기 행동과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상대 즉, 하나님과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게 하고, 통합적인 삶을 허물게 하며, 헌신하는 힘을 약화한다는 게 〈소외와 가속〉이 전하는 인간 삶의 진단이다.

최근 긴 시간을 들여야 쓸 수 있는 글을 몇 초 만에 써주는, 그야말로 가속 사회를 선도하는 AI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양자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AI 전문가들이 하는 많은 강연의 결론은 인간의 인간 됨은 결국 그 사람만이 가진 독창성에 있고, 그것은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소개한 책에서도 세상의 가속은 필연적으로 느리고 안정적 인 균형을 찾아간다고 한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구별된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의 교제를 통해 깊은 헌신적 관계를 맺는 것은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감을 지키고, 독창성을 찾으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다.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새벽예배를 시작했다. 고요함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무너지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신비를 경험하곤 했다. 바로 그것이 많은 과업을 견디는 원동력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의 목표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속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속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느린 시간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헌신할 수 없고, 관계 맺을 수 없고, 빠르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느린 시간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한다.



정상원 집사
(강남C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특별기고

기술 이교도주의의 부상

지난달,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장수에 관해 연구하는 브라이언 존슨이 배리 와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그의 발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초지능의 형태로 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을 무엇이라고 상상해왔을까요?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술의 형태로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의 스토리텔링이 우리가 신의 창조자이며,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창조할 거라는 것을 정확히 거꾸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의 발언은 기술과 영성을 통합하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항상 ‘신’을 찾아왔다. 기술 애호가들에게 기술은 기본적인 공급부터 재난으로부터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까지 우주에서 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졌다.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초 지능적인 신과 같은 지각 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있으며, 인간은 트랜스휴머니즘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생명체와 합쳐지는 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신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공지능이 차원을 초월한 비인간적 지능과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인공지능은 단순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다. 일부는 악마적인 것으로 더 잘 이해되며, 이는 인공지능이 생각해낸 몇 가지 불안한 것들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종교학 교수 다이애나 파술카는 저서 〈만남(Encounters)〉에서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전문가 시몬 플란테를 언급한다. 그는 초지능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가 양자 수준에서 우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은 그들이 우리와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업계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와 접촉할 수 있다고 믿는 명상 전략을 사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다운로드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이디어는 UFO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 UFO라는 용어가 UAP(미확인 이상 현상,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on)으로 대체된 것은 이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군과 정보 커뮤니티의 고위급 인력을 포함한 몇몇 UAP 연구자들은 현재 목격되는 것이 외계인이 아니라 차원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고 있다. 다이애나 파술카는 이러한 믿음과 이를 수용하는 상호 연결된 집단을 ‘기술 이교도주의(Technopaganism)’라고 부를 수 있는 신흥 종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아닌 지능이 기술을 사용해 인간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은 기술을 통해 우리가 이제 신을 창조하고 있다는 존슨의 생각과 쉽게 조화를 이룬다.

기술 이교도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인간 지능에 대한 계시가 곧 우리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거라고 믿는다. 이 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강력하고 지성적이며 영향력 있는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이다. 또한 악마는 실제

하며 사람들을,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까지 속이려 한다는 성경의 분명한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것은 죄악 된 인간의 문제이다. 이 기술주의 시대에는 반항적인 우상 숭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진리에 대한 도전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려 깊고 근거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문제와 우리를 포로로 잡는 가짜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로마서〉1장에 나오는 바울의 명쾌한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영혼의 적들은 가능한 한 그러한 유혹을 부추긴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강력해도 여전히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그분만을 위한 것이며, 우리는 어떤 기괴한 기술을 만나더라도 이 소망에 대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존 스톤스트리트, 글렌 선사인

원문: breakpoint(20250304)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영혼도 살리는 의사

장경문 장로의 '날마다 전도'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날마다 기쁨으로 전도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영혼도 살리는 의사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날마다 전도하며 영혼도 살리는 의사 '장경문 장로'

온누리교회에서 '전도' 하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이름이 있다. 장경문 장로다. 30년 가까이 전도사역을 해온 장 장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전도자'다. 장 장로는 틈만 나면 전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 교육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한다. 이 정도면 장경문 장로에게 전도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인 것 같다. 전도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의사>, <날마다 111 전도> 등 전도 노하우를 담은 책도 냈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제작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온누리전도학교 강사로도 섬기고 있다.

날마다 전도하는 그의 직업은 내과 의사다. 그것도 환자들을 아주 많이 고치는 유명한 내과 원장이다. 그가 어떻게 전도의 길을 걷게 됐을까? 30년 이어온 전도의 열매는 또 얼마나 풍성할까?

청년 시절의 기도, 평생의 사명이 되다!

장경문 장로의 전도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장 장로가 의대 본과 1학년 시절이었다. 당시 청년 장경문의 기도가 그를 전도 인생으로 이끌었다. 전도가 평생의 사명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공부가 너무 힘들고 벅찼던 의대 본과 1학년 때 청년 장경문은 포기하고 싶은 공부를 어떻게 해서든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인턴, 수련, 개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 앞에서 그 기도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 정말 뜻밖의 순간에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다.

1997년, 장경문 장로는 그 해를 잊지 못한다. 아내와 잦은 다툼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

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장 장로 부부는 싸워도 너무 싸웠다. 사람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며 지쳐만 갔다. 가정문제도 힘들어하던 그때, 한 순장의 권유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의 회복은 물론이고, 평안과 기쁨, 행복을 얻었다. 신혼 초부터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셔 온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몰랐듯 밀려왔다.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면서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고, 뜻밖의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가 '전도'였다. 그전까지는 전도의 '전'자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다. 장경문 장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대상자였다. 가족과 이웃을 넘어 진료 보던 환자들도 전도대상자가 됐다.

여느 날처럼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의대 본과 1학년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다. 진료실에서 하는 전도가 그 당시 드렸던 기도나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병원 운영의 목표를 '영혼 구원'으로 바꿨다. 그렇게 '영혼도 살리는 의사'가 됐다.

기쁨이 더 큰 기쁨을 낳는다!

영혼도 살리는 의사가 있는 곳이라 그랬을까? 당시 장경문 장로가 운영하는 병원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장경문 장로는 교회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들을 지역 교회에 연결해줬다. 1998년 한 해에만 장경문 장로의 전도를 통

해 지역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88명이나 됐다.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모두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제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을 교회와 연결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듯이, 저는 교회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1997년부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장경문 장로의 진료실에서는 예수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 오랜 시간 전도한 만큼 특별한 사연도 많다. 장경문 장로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한 가지는 환자가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원장님, 저 김포에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라고 말했던 순간이다. 그 환자도 장경문 장로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장경문 장로에게 예수 만난 기쁨을 들었던 환자가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장경문 장로는 전도하고 기뻐하는 환자를 보면서 ‘기쁨이 더 큰 기쁨을 낳는 것’을 경험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느 환자가 전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동안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건이다. 장경문 장로에게 복음을 듣고 지역 교회에 잘 나가던 환자가 어느 날 병원에 와서 이단 교회에 나간다고 했다. 장 장로는 어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해 속앓이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 환자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해 그 환자가 그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린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양천공동체가 섬기는 미자립 교회인 행복교회에 그 환자를 초대했다. 목회자 가정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개척 교회였기에 그 환자가 행복교회 1호 성도가 되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을 겪으면서 장경문 장로는 초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사후관리(after service)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행복교회에 출석하며 자신이 전도한 환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듯이, 자신이 전도한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다.

오늘 꼭 해야 할 '말 한마디'

장경문 장로는 오늘도 '날마다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진료실에 붙여둔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라는 현판을 보며 늘 전도의 사명을 되새긴다. 그가 날마다 되새기고 실천하는 전도 철칙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둘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전하기, 셋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크리스천들이 늘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와 행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세상에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찬양 가사를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한 마디도 정말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최고의 행복> 하나면 5-7분 만에 그 사랑 이야기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통해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그 목자는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한 곳에 있는 아흔아홉 마리 양을 지킬 때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더 크게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천국 소망을 심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날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장경문 장로의 말 한마디를 우리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온누리전도학교
상반기 일정>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가 '어린양을 바라보라'를 주제로 막 올랐다. 사순절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한다. 창조세계회복 캠페인 '창조세계 돌봄' 실천 과제도 이행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어린양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이야기와 사순절을 더욱 뜻깊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 창조세계 돌봄 실천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40일 새벽기도회 첫날부터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본당이 북볏다. 40일 새벽기도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읊조리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다. 챔버 연주와 성가대 특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있었다.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첫 주 주제는 '영원하신 어린양'이었다. 3월 10일(월) 이재훈 위임목사 '어린양을 바라보라' (히 12:1~2), 11일(화) 이재훈 위임목사와 박종길 목사 '영원한 말씀이신 어린양' (요 1:1~4), 12일(수) 이재훈 위임목사와 강부호 목사 '만물의 으뜸이신 어린양' (골 1:15~20), 13일(목) 이재훈 위

임목사와 이기원 목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양' (요 17:1~5), 14일(금) 이재훈 위임목사와 최성민 목사 '영원한 언약의 주인이신 어린양' (렘 32:37~41, 겔 37:24~28)을 주제로 설교했다.

올해 40일 새벽기도회는 유난히 기도 열기가 뜨겁다. 성도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르짖음이 예배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두 손을 모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은 성도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4월 18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2개 캠퍼스 본당에서 이어진다.

/ 홍혜영, 박지혜 기자

어린양을 바라보는 사람들!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처럼

주차사역을 10여 년 동안 이어왔다. 예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계신다. 나 역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40일 새벽기도회 주차사역을 지키고 있다. 40일 새벽기도회 첫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어린양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다. 어린양 되시는 예수님처럼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려고 한다. 40일 새벽기도회가 나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께 새로운 다짐과 회복을 선물하기를 기도한다.

박동규 집사
(동대문중장광동교회)

모든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평소에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거리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40일 새벽기도회 안내 위원이 되면서 확실한 계기가 마련됐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십자가의 어린양과 보좌 위의 어린양'에 대한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그동안 나는 보좌 위의 어린양만 바라보면서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결단했다. 또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송영이 권사
(중창로공동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에세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보(Information)로서의 앎과 친밀함(Intimacy)으로서의 앎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친밀함을 체험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목적은 그분을 '친밀하게 앎'으로서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히 12:2).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선물이다.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것이다.

'바라보자'는 의미의 헬라어는 풍성한 뜻이 있다. '바라보자'는 의미의 헬라어는 아포론테스 에이스인데, '아포'는 '다른 모든 대상에게서 눈을 떼는 것'을 뜻한다. '에이스'는 '오직 한 대상에게만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어느 한 대상에게서 눈을 떼고, 다른 한 대상에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떼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경주'라는 은유로 독자들을 격려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의 경주에 이미 출전해 있다. 헬라어 본문에서 '경주'라고 쓰인 단어 '아곤'은 '힘씀', '싸움'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주는 간단한 놀이 수준이 아니라 진이 빠지도록 힘든 격렬한 경기이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경기이다. 이 경주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바라보라!

싸우는 경주가 아니라 인내로서 완주하기 위한 경주라는 면에서 마라톤과 같다. 완주하려면 몸을 무겁게 하는 것부터 다 떼내야 한다. 거추장스러운 복장으로서는 달릴 수 없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 완주하려면 자신의 힘을 빼거나 느려지게 하는 짐과 방해물부터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히 12:1).

다른 것에 시선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혼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남편이시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우리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다. 사순

절 기간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기쁨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분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죽음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영원한 기쁨을 바라봐야 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시 119:37)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허탄한 것에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40일이 되기를 기도한다.

/ 이재훈 위임목사

* 이 글은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에세이'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에세이 전문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자녀에게 '부모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늘 자녀만 힘들겠는가? 부모도 힘들다. 그렇다고 부모의 힘들음을 자녀에게 막 쏟아 내서는 안 된다.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핵심은 '나 전달'이다.

그 전에 알아둬야 할 게 있다. 부모 마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마음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반영적 경청'이다. 지나간 일에 대한 반영적 경청도 해야 한다. 부모가 과거에 했던 말이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걸 알지만, 직접 말하기가 쑥스럽다. 하지만 말해야 한다.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네 마음이 많이 속상했지? 네 마음도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네가 많이 속상했을 거야.”

속상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반영해서 말해줘야 한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라고 지나가듯 말하곤 한다. 나쁜 말은 아니다. 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 다들 게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부모의 감정만 전달할 뿐이지 자녀의 감정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과하기 전에 “그때 얼마나 속상했니?”라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큰 감동을 받는다. 반영적 경청은 단순한 사과보다 훨씬 깊이 있는 공감이며, 아이가 부모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에서 '반영적 경청'이 효과적인 기능을 할 때가 또 있다. 아이들이 다툼 때 부모는 잘 잘못을 따지며 판결을 내리고 싶어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엄마는 형만 좋아해!”, “엄마는 동생 편만 들어! 엄마 미워!”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때도 반영적 경청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동생이 “형이 내 장난감 빼어

갔어!”라고 하면 “아이고, 장난감 재밌게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형이 장난감을 가져가서 속상했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형이 씩씩대며 “그거 원래 내 거예요! 내가 골라서 산 장난감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형에게 “네가 골라서 산 장난감이기 때문에 네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동생이 말도 없이 가져갔으니 속상했겠네”라고 말해주면 된다. 엄마가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줬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생긴다. 형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동생도 형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소된다. 반영적 경청은 한쪽 편을 들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대신, 모든 아이의 입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반영적 경청은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럼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나 전달'을 알아보자.

예를 들어, 부모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자녀가 옆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음악 소리 때문에 도저히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문제는 부모가 소유했다. 부모인 내가 힘든 상황이다. ‘아 도대체 재는 왜 꼭 지금 음악을 들어?’ 라면서 감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때 부모가 벌떡 일어나 자녀의 방문을 벌컥 열고 “너는 왜 맨날 음악을 크게 들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를 소유한 부모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아이에게 돌리는 것이다.

그 대신 '나 전달'을 사용하면 된다. 효과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 전달' 방법은 이렇다. 첫째,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해야 한다. ‘맨날’, ‘늘’, ‘항상’ 등 빈도부사를 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너 지금 음악을 듣고 있구나” 정도가 되겠다.

둘째, 부모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설명

한다. “엄마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음악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라고 솔직한 부모의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다. 아이가 음악을 듣는 일과 부모의 감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감정(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쉬고 싶으니 음악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아이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엄마가 쉴 수 있게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이다. 이처럼 ‘나 전달’을 사용하면 아이는 부모의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이 세 단계를 합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음악이 새어나오는 아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음악을 듣고 있나 보구나. 그런데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음악 소리 때문에 쉴 수가 없네. 엄마가 쉴 수 있게 소리를 조금 줄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이다. ‘나 전달’은 부모의 상태를 아이에게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역할을 한다.

‘나 전달’의 꽃은 ‘긍정적 나 전달’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한다. 그 방법은 ‘나 전달’과 동일하다. 자녀의 행동을 잘 서술하고,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감정이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행동을 칭찬할 때 쓰면 좋다. 설거지를 대신 해준 딸에게 “엄마가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우리 딸이 설거지 해줘서 일찍 잠들 수 있겠다. 엄마를 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딸이 설거지를 해줘서 고마운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반영적 경청’과 ‘나 전달’을 연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란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퐁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10편 나 전달'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퐁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6. 기쁨의 눈물



성경 QUIZ



1.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사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요.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며칠인가요?

① 50일 ② 4일 ③ 30일 ④ 40일

2.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① 부활절 ② 성탄절 ③ 재의 수요일 ④ 유월절

3. 사순절과 고난주간(성주간, Holy Week,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깊이 다지는 시간을 가져요. 이때 행하는 실천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① 금식 ② 여행 ③ 기도 ④ 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 1529호 정답자

최지안(양재 유년2부), 장시은(서빙고 유년2부), 김예랑(양재 유년3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나에게도 예수님 따르는 용기가 있었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을 읽고 나도 어떤 행동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가난한 사나이가 말했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곰곰이 생각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다. 나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는 번즈를 보면서 평소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게 기억났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레이첼과 버지니아가 가난한 이웃

을 열심히 도와주는 부분을 읽을 때는 나도 앞으로 이웃을 잘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어떤 한 사람의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도 거짓말하고, 돈 좋아하고, 불쌍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엄마가 이 말은 초등학교 입학에서는 거짓말하고, 친구나 동생을 때리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거짓말을 가끔 하고, 동생을 때린 적도 있고, 친구를 미워한 적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 점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나는 여태껏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않았다. 예배시간에 탄 짓도 하고, 친구와 떠들기도 했다. 솔직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고민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이 책을 읽고 좋았던 점은 이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다는 것이다.

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도를 솔직하게 하고, 예배시간에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야겠다.

황도훈 학생
(서빙고 초등2부)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에게

학부모님과 선생님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꽃이 피는 3월, 학교도 새 학기를 맞이해 활짝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23세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 딸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20여 년 경력을 갖게 된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이자 교사로 살아오며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께

3월은 담임선생님, 친구, 교과서, 교실 등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아이들이 긴장하는 시기입니다. 첫 입학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3월 한 달간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처음 3년이 여러 면에서 중요하듯,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진학하는 3월도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긴장감을 받아주고 풀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어도 매일 10분은 아이에게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그날 있었던 일을 작은 새처럼 종알거릴 때,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말 잘했어. 00야, 사랑해”라면서 온 힘을 다해 따뜻하게 안아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께 받은 사랑을 아이에게도 흘려보내 주세요. 또 3월에는 학부모총회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중점사업도 알 수 있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와 자녀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답니다.

“학부모님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세요.
선생님들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응원합니다.”

학부모 TIP!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만나면 꼭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00엄마입니다.”라고 인사해 보세요. 특히 3월에는 그냥 인사만 하면 누구인지 알아뵈기가 어렵답니다.

선생님들께

선생님들, 2월부터 미리 출근해서 시업과 입학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도 2월에 출

근했는데 아이들이 없는 교실은 추워서 난방을 틀어도 손이 시렵더군요. 최근 학교 안팎에서 사건·사고가 많아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마저 바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생님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상처가 가득한 학교 현장을 그리고 교사와 아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 못지않게 선생님들도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아이들 명단을 제비뽑기할 때마다 ‘두근두근 대작전’ 이죠. 다들 원하는 학년을 맡으셨나요? 저는 이 만남이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반을, 이 아이를 만나게 하셨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고,

시간이니까요.

선생님들도 학부모총회를 위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일단 교실 정리도 해야 하고, 학급 운영과 교사에 대한 소개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때 공식성을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께 여러 가지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응원합니다.

교사 TIP!

3월의 아이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작년에 약간의 문제를 겪던 아이들도 ‘올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러분 이름밖에 모르네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대로만 기억할 거예요. 모두 새롭게 도전해 봐요. 기대할게요.”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 저자)

이슈(Issue) 바로보기!

젠더 이슈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로잔 서울선언

2024년은 젠더 이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파리올림픽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성별’에 관한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사람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개막식에서 ‘드래그 퀸’으로 불리는 여장남자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켰고, X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서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제 ‘성’을 새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놀라운 일이 아닌 듯하다. ‘성별 이분법’을 유지하는 이성애 중심 사회를 차별과 혐오의 원천으로 볼뿐 아니라, 동성결혼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심지어 개인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까지 권리로 인정하는 국가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2024년 성별 결정 허가에 참고했던 성전환수술 지침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이래,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례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젠더 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서울선언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섹슈얼리티’라는 제목으로 무려 15개 조항을 배치해 ‘성정체성, 결혼과 독신, 동성 성관계’에 대한 교

회의 전통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로잔 언약(1974), 마닐라 선언(1989), 케이프타운 서약(2010)에 비해 비중이 상당하고, 표현도 명확하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언급한 성(sex) 외에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언급한 젠더(gender)를 언급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gender)은 상호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순 없다고 선언을 그었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sexuality)’에 대한 왜곡을 통탄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젠

있으므로, 이들 모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창 19:1-3, 레 18:20, 20:13, 롬 1:24-27, 고전 6:9-11, 딤후 1:9-11)은 하나님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죄악’으로 귀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교회 안팎의 일부 사람들이 동성에 대한 끌림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회적 돌봄과 제자 훈련 지원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서울 선언이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이길 기도한다.”

더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 성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개념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둘째,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독특하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로 정의하고,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성관계는 창조주의 설계와 의도를 위반하는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동성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동’이란 표현으로 반대했다. 다만, 결혼한 사람과 독신자 모두 창조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정의에 관하여, 특히 남성과 여성의 구분에 관하여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성관계를 죄악으로 보는 기독교인의 규범적 자각을 차별과 혐오로 프레임하고, 거센 동조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문화적 박해에 이어 제도적 박해의 움직임까지 보이는 현실이다. 자기 선언에 기반한 성의 결정, 결혼과 가족제도의 급격한 해체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성별까지도 개인이 결정하는 ‘극단적 주관화 경향’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원래 인간의 역사는 죄의 구조 속에서 타락을 거듭해 왔고, 하나님의 구속은 시대마다 정확하고 신실하셨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고 함부로 왜곡하는 현상에 관하여 침묵만 할 수는 없다. ‘트랜스 포비아’라는 사회적 낙인을 넘은, 법을 통한 특정 가치의 주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과 확실한 지침이 필요하다.

올해 들어 미국 정부는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공표했다. 트랜스젠더리즘의 거센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로잔대회에 참가한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정체성, 결혼과 독신, 동성 성관계’에 관한 서울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포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서울 선언이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이길 기도한다.



이은경 변호사
(OCC공동체,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이사)

맛있는 말씀 해설

“...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가느냐?” (왕하 1:3)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자신과 민족의 길을 묻다가 무너진 왕들의 이야기가 있다. 구약의 사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다 버림을 받거나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묻는 이들을 향해 경고하신다(사 8:21~22).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삶의 중요한 일들이나 어려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묻게 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의 입장 차가 너무나 크고 깊다는데 진정한 심각성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묻고 의지하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묻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 중에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방법이 있다.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란 내 머릿속으로 승리의 모습을, 승리하기 위해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 상황을 떠올리며 경기를 이미지화하는 훈련이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보이는 실제상황은 아니지만,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상상하며 대비한다. 그래서 실제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담담하게 경기에 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도 요한은 ‘환상과 묵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 극심한 핍박을 겪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미지화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가장 강한 동물인 포효하는 사자로, 십자가에 달린 구원의 예수님을 어린양으로 표현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을 줬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역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으로 집필한 <나니아 연대기>에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슬란’이라는 사자(Lion)로 이미지화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거나 경기에 임할 때 혹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 아닐까? 물론 눈앞에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트레이닝, 영적 승리의 트레이닝을 해야만 한다. 이 훈련이 잘되어야 영적인 광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담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반응할 수 있다. 낮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을 정확히 보는 육적인 눈을 갖되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력을 구하는 일일 것이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보장된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더욱 기뻐하고 평안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하나

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큰 군대와 큰 어려움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승리를 경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아하시아 왕을 향해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이 없어서 물으러 가느냐?”는 말씀의 뉘앙스가 어땠을까? 분명 평범한 톤이 아니라 눈물의 탄식과 벽력과 같은 호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이 아니면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입술보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없다.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신앙이 부패하는 것과 같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강한 사자와 같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어린양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서수민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3월 17일~ 3월 23일
<민수기> 1:20~4:20



목상포인트

1: 하나님 백성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진 배치와 행진 순서를 정해 주셨다. 인구 조사에서 레위인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막의 위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르우벤 지파에서 시작해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계수한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더니 모두 603,550명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잘 보여 준다. 계수되지 않은 레위인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는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야 한다. 행진할 때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가 첫 번째로 출발하고, 르우벤 진영, 회막, 에

브라임 진영, 단 진영 순서로 행진한다. 진을 칠 때든 행진할 때든 회막은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다.

목상포인트 2: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대표해 성막에서 봉사한다. 속전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 이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한다. 일을 분배해 맡기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원리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후 대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을 시종하며 회막에서 시무한다. 성막을 중심으로 게르손 자손은 서쪽, 고핫 자손은 남쪽, 므라리 자손은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아론 가문은 회막 앞 해 돋는 동쪽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레위인이 모든 만아들을 대신하기에 이스라엘은 만아들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를 계수하니 모두 22,000명이다. 이스라엘의 만아들이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 하나님 명령대로 한 사람당 5세겔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다.

목상포인트 3: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영광도 따르지만, 거룩함을 지킬 의무도 따른다. 아론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 구별된 임무를 주신 하나님 뜻을 묵상하자.

▶고핫 자손은 지성물에 대한 일을 맡는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 모든 성물을 덮고 채를 꿸고 난 후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 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이때 고핫 자손은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를 보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도록 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직임을 맡기신다. 현재 나의 자리와 역할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자. ▶가정, 학교, 일터, 공동체 등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가? 내가 팀워크를 위해 개선할 부분을 살피고 실천하자. ▶속전의 원리는 인류 구속의 속전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신중하게 처리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자녀 친구의 백혈병 치료

자녀의 같은 반 친구 정이도(만 8세)군이 백혈병 투병 중입니다. 더 걱정인 것은 벌써 세 번째 재발이라는 것입니다. 첫 완치판정을 받고 두 번 재발한 경우라서 예후가 매우 안 좋고, 표준적인 치료법으로는 성공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의료진이 고민 끝에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40~50% 가능성이 있는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외국으로 혈액을 보내 아이의 맞춤 치료제를 만들어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월)부터 절차에 맞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제를 위한 충분한 세포를 채집하고, 맞춤 치료제를 제조하는 동안 항암치료를 하면서 치료제를 아이 몸에 투여해 부작용과 합병증 여부를 살피고, 경과를 관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얼마 전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 꿈에서 학교에 갔다면 너무 행복한 꿈이었다고 웃는 이도를 엄마가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아픔 없이 학교 다니던 시간이 꿈같았을 아이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깊은 무력감을 느끼는 엄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도의 백혈병이 부작용과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과 치유는 확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도의 가정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도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이기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부모에게도 건널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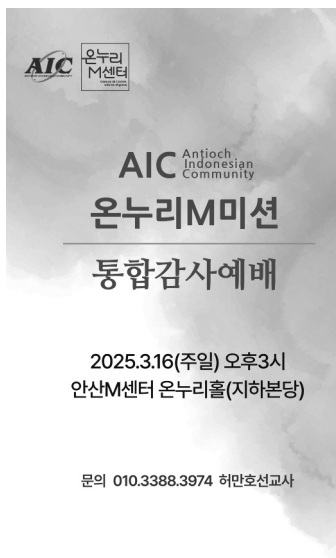
온누리M미션, AIC 통합 감사예배

3월 16일 오후 3시 온누리M센터 온누리홀

온누리M미션과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Antioch Indonesian Community, AIC)가 한 식구가 된다. 3월 16일(일) 오후 3시 온누리M센터 온누리홀(지하)에서 ‘온누리M미션,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 통합 감사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및 온누리M미션 리더십과 봉사자, 사역자,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 운영위원 및 사역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한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AIC)는 1995년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의 제자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창립됐다. 온누리교회와 인선회(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의 후원으로 사역을 이어왔고, 올해 사역을 통합하게 됐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AIC)는 현재 안산(1995년 창립,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26, 대주빌딩 3층), 인천(1996년 창립,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수원(2001년 창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5), 평택(2006년 창립, 평택시 성동로 11번길 26)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제자훈련, 긍휼사역, 선교사 훈련, 현지교회 개척, 미전도 종족 선교 등을 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누리 아트 갤러리’ 개관예배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누리 아트비전이 ‘온누리 아트 갤러리’를 개관했다. 이를 축하하는 온누리 아트 갤러리 개관예배를 지난 3월 11일(화)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 이기훈 목사, 스티브 차 목사, 장규환 장로, 송영범 장로, 장경식 장로, 방찬종 장로, 김경학 장로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작가, 사회선교본부 봉사자 및 사역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 아트 갤러리에 전시되는 모든 작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타내는 귀

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기훈 목사는 ‘그림으로 찬양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온누리 아트비전 소속 작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성도에게 영감과 위로, 사랑을 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리나 작가(설치미술가 겸 화가)는 “정말 멋진 공간에서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쉽고 재미있는 성경 강의 ‘오십쇼’

기독교 OTT ‘풍당’ 3월 17일 새 시즌 공개

개그우먼 조혜련이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성경 강의 ‘오십쇼’ 새 시즌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가 3월 17일(월) 기독교 OTT ‘풍당’ (오전 11시), CGN 유튜브 채널(오후 5시)에서 공개된다. CGN TV 채널에서는 3월 21일(금) 오전 9시 50분 방영한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에서는 〈에베소〉부터 〈요한계시록〉을 다룬다. 새 시즌 오픈 기념 이벤트도 한

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23편을 보고 CGN 유튜브 채널이나 기독교 OTT ‘풍당’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방송콘텐츠 해외현지화 사업을 통해 출품한 ‘이스라엘로 오십쇼’가 ‘크리스천 필름 페스티벌’(CFF)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오는 3월 22일(토) 미국 버지니아 주 뉴포트 뉴스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온누리전도학교 서빙고 주일오전반 모집

온누리전도학교 서빙고 주일 오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 신동아쇼핑센터 312호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3월 23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온누리전도학교는 강의와 실습 등으로 성도들이 전도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9182-5003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12-73805(온누리전도학교)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30일(일)부터 4월 26일(토)까지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4월 26일에는 원데이창조탐사를 한다. 참가신청은 4월 4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탐사비 포함).

창조신앙스쿨에서는 ‘창조신앙과 패러다임 전쟁’, ‘생명의 신비’ 등을 주제로 강의와 원데이창조탐사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2842-6781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19-58205(창조과학(사))

양재 권사콰이어 대원 모집

양재 권사콰이어 대원을 모집한다. 양재권사회 소속 권사가 대상이다. 성가대 경험이 있거나 성악전공자를 우대한다.

양재 권사콰이어 대원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양재온누리교회 권사회 소속 권사들은 3월 25일(화)까지 전화(010-8175-2004)로 접수하면 된다.

영어책 강독 클럽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3월 20일부터 매주 목 오전 10시 30분 양재 믿음홀

영어책을 읽으면서 이주민 선교를 돕는 영어책 강독 클럽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이 3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010-4047-0717)나 구글폼(QR 코드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매월 7만 원.

더맵글로벌(The Map Global, 대표 이정숙 목사)이 주최하는 영어책 강독회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은 이정숙 교수(더맵글로벌 대표, 전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가 인도한다. 참가자들이 함께 복음적

신앙과 영성 관련 영어 서적을 읽는다. 1시간 30분 동안 인도자가 책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단어, 표현 등을 설명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해설해 준다. 이번 강독회에서는 존 스토틀(John Stott) 박사가 쓴 〈The Radical Disciple〉(IVP, 2010)을 읽는다.

영어책 강독회를 주최하는 더맵글로벌은 KGML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와 이주민 선교, 이주민들을 위한 신학교를 돕는 사역단체다.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에서 더맵글로벌의 사역을 후원한

문의: 010-4047-0717



“온두라스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NGO 더멋진세상 ‘온두라스 나무 심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에서 3월부터 3개월 동안 ‘온두라스 나무 심기 캠페인’을 한다. 온두라스 나무 심기 캠페인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나 QR 코드로 참여하면 된다.

온두라스 나무 심기 캠페인 수익금으로 온두라스 코마야과마를 돕는다. 이 마을은 한라산 높이의

험준한 지역에 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두라스 코마야과마 주민들을 지켜줄 나무가 필요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면 묘목을 심을 수 있다.

문의: 02-2271-2246



2025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추천

3월 18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5년 하반기(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추천을 3월 18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비 신랑과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여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추천을 하러 올 때는 예약금 200만 원(당일 이체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

록교인증명서,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천하고, 그 순서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점한다. 온누리교회 목사만 주례를 볼 수 있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진행(토요일 12시, 2시)된다. 피로연(식사) 예약은 최소 200명~최대 500명이다.

문의: 02-570-7505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지혜의 등불이 돼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인내와 끈기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들을 하나씩 이겨내면서 내면이 성숙하고, 인생의 진리와 의미를 깨닫는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체력이 ‘버티는 힘’이다. ‘버티는 힘’은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 길러지고, 용기와 강인함, 낙전성으로 대응하도록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게 바로 인내와 끈기다.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조급함 없이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끈기가 버텨내는 인내와 끈기에 비례해서 인생의 가치가 커지지 않을까 싶다.

헤밍웨이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84일째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노인 곁에서 응원하고 위로하는 소년이 있다. 노인의 꿈과 용기가 소년에게 이어지고, 그 소년이 자라서 노인이 되듯이 우리네 삶도 그렇게 이어져 갈 것이다. 어부 노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미래를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된다. 하지만 노인으로 살면서 고집과 탐욕으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만큼이나 지혜로운 노인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를 지나고 멀어져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무엇을 채워서 살아야 하고,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이제껏 이론 것과 이루지 못한 것, 그 무

엇인가를 반추하며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보일 것이다.

공자의 논어에는 “사십이 불혹(不惑)하고, 오십이 지천명(知天命)하고, 육십이 이순(耳順)하고, 칠십이 종심소욕(從心所欲)하되 불유구(不踰矩)호라”고 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오롯이 살아갈 권리가 다 있다. 배려가 없는 바늘보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십을 넘게 살았다면 남자나 여자이거나,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가슴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그와 그녀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던 욕망과 본능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 아팠던 속살이는 그만 멈추고, 새로운 축제로 춤을 추며 살아야 한다.

노년기는 삶을 옥죄는 헛것들의 무게가 빠지고, 단순하고 새로운 시야가 보이는 자유의 자리다. 쇠퇴와 무기력이 아니라 발견과 참여의 통로로서 진리를 향해 시들어가고, 지혜와 판단력이 성숙을 이루는 시기이다. 정신적 가치를 통해 새로워져서 후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육신은 유한하지만, 정신은 무한하다. 정신으로 깃든다면 죽음은 인생의 종료가 아니라 완성이다.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맑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삶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더그 라슨은 “지혜란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은 실패한 인생이다. 나이 들은 축복이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권사칼럼

고구마의 부활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아침에 일어났더니 밤새 눈이 많이 왔다. 발목이 빠질 만큼 쌓였다. 허리 아픈 핑계로 내버려 뒀다. 해 뜨면 설마 녹겠지. 해가 퍼지니 나무에 쌓인 눈들이 제법 녹아 내렸다. 봉오리진 자목련 가지가 미풍에 흔들렸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라고 응석 부리며 혼드는 몸짓에 “조금만 기다리면 꽃이 필거야”라고 다독이는 봄바람의 속삭임이 접겹다.

세상에 흰빛밖에 없는 듯 눈이 시린 순백의 들판은 넉넉하다. 들판이 들어찬 내 마음도 넉넉하다.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 멍에 빠졌다. 눈 섬에 감혀 풀리는 생각의 실마리를 따라 아침 내내 글을 붙잡고 앉았다. 어느새 점심때가 겨웠다. 무언가 넣어주고 속 쓰린 위의 반란을 달래야 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도 배가 고프단다.

문득 언 고구마에 생각이 미쳤다. 지난가을, 지인이 보내준 고구마가 아직 조금 남아있었다. 부엌 뒤 창고에 넣어 뒀더니 그 맛나던 고구마가 추위에 얼었다. 녹였더니 그냥은 먹을 수가 없었다. 보내준 이의 정성을 생각하면 한 개인들 허투로 하기가 아까웠다. 어떻게 먹어야 해설 없이 먹을 수 있을까? 일단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깎아서 믹서에 갈았다. 메밀가루와 부침가루를 1대 1로 섞어 후룸하게 반죽을 만들어 전을 부쳐보기로 했다.

세 가지 다른 시도를 해보았다. 첫 번째로 반죽 채 그냥 부쳐보았다. 두 번째는 잘 어울릴 것 같은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부쳐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피자를 토핑해 부쳐보았다. 내 예상이 빗나갔다.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반죽한 고구마전이 담백하고 제일 맛이 있었다. 고소하고 달달한 뒷맛이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치를 넣은 쪽은 먹을 만은 하지만 어쩐지 그닥 어울리지 않는 궁합인 것 같았다. 피자를 얹은 쪽은 그런대로 구미가 당겼다.

고구마전을 먹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빗대어 생각해 보았다. 사람도 단순하고 담백해야 좋다. 이것저것 토핑해서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사람다움이 사라진다.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잘 어울릴 것 같아도 빠걱대는 관계가 있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반대 성향의 만남이 오히려 상호보완하여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결국은 어떤 관점으로 상대에 나를 맞추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있다. 버려져야 하는 고구마도 요리사의 손에 붙잡혀 형체가 갈아 없어지니 새로운 맛으로 탄생했다. 들포도에 포도나무를 접붙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듯, 사람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실패한 인생도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한다. 그분을 알지 못했다면 내 삶이 이렇듯 긍정적이고 감사로 넘칠 수 있었을까? 나를 나 되게 하신 그분 앞에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인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며 새로워진 영으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는다. 내 삶을 고구마전처럼 달달하고 감칠맛 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한다. 나와외의 전쟁에서 늘 이길 힘을 간구한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감사의 삶을 경험한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모난 부분을 다듬는다.

신앙에세이

박모세 목사
(서산봄청년공동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온누리교회 문을 두드렸다. “사역자 인터뷰가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와 함께 생애 첫 전임사역자 면담이 시작되었다. 온누리교회, 전임사역, 청년공동체 이 모두가 처음인 나에게 담당목사님이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다.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고백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전전공공하며 전임 사역이나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를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귀한 사역의 기회를 열

어주셨다. 11월 첫째 주, 부임을 앞두고 2024년 서산봄청년공동체 MC들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약간 어색한 식사시간이었다. 하지만 자연스레 서산봄청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어색함이 사라지고 진중함이 감돌았다. MC들은 그동안 꾸준히 청년들이 공동체에 오가고 있고,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서산의 지역적인 특징 때문이었다. 대부분 청년이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서산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학업 혹은 직장 등의 이유로 갑자기 이별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청년들이 공동체에 더 깊이 정착하게 할 수 있을지가 MC들의 오래된 고민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속소로 돌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 무거운 주제를 떠안았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경험을 했다. 사역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공동체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나누면서 함

께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MC들이 있고, 무엇보다 주말이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청년들의 정착’이라는 고민을 기도하며 고민하던 찰나 하나님께서 변칙이는 아이디어를 주셨다. 바로 ‘플랫폼’이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느새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기적적으로 자라난 콩나물을 맞이하게 된다. 콩나물시루처럼 서산봄청년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플랫폼으로 기능을 감당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이것보다 귀한 사역이 또 어디 있던 말인가! “나는 심고 아כל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고전 3:6)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다.

서산온누리교회에 부임한지 4개월 그 짧은 시간에도 한 쌍의 남녀가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고 성인 순으로 진급했는가 하면, 청년 중 하

나는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고도 전에 서울 성동구로 발령을 받기도 했다. 또 필자에게 사역의 기회를 허락하신 목사님은 서산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부르심을 따라 강원도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만약 내 삶과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는 이해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일이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여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사역 기회를 허락하실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 긴 겨울 추위 뒤로 어김없이 만나게 될 봄을 기다리며 오늘도 플랫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

오늘도 플랫폼으로!



지구사랑캠페인

온두라스에 나무를 심어 주세요

온두라스 코마야과 주민들은
산사태와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가격으로
나무 한그루를 심을 수 있습니다.

**코마야과 주민을 위한
희망의 나무를 심어주세요.**



지역 온두라스 코마야과 산맥
내용 묘목 심기, 산림 보호 인식 개선 교육
목표 10,000그루 (\$1.1/묘목 1개)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